

4년 전부터 그곳에 죽음이 멈췄다



아시아경제

서민을 기자



봉사자들이 파주시 법원읍 내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집을 방문하고 있다.

“매년 2~3명씩 발생하던 고독사가
최근 4년간 사라졌어요”

고독사는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홀로 맞이하는 죽음을 의미한다. 생활고와 외로움에 기반한 병사(病死)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상당 시간 방치됐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런 점에서 파주 은빛교회 강인희 목사의 말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국가도 못 한다는 게 가난 구제이고, 고독사는 생활고를 포함한 더 넓은 범주의 원인을 포함한 사고인데 어떻게 단일 교회가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종교인 감소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리즈 기획의 일환으로 2023년 12월에 만난 강 목사는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에서만 20년간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있었다.

2004년부터 어린 남매 손 잡고
어려운 가정에 반찬나눔

강 목사가 파주시 법원읍에 은빛교회를 세운 건 2004년이다. 1998년 일산에서 시작한 반찬나눔 사역이 신도시개발 등으로 변곡점을 맞이하자 도움이 더 필요한 이들을 찾아 법원읍에 새로 터를 잡았다. 강 목사에 따르면 당시 법원읍에는 형편이 어려운 조손 가정이 많았다. 반찬을 손수 마련해 가가호호 방문했고,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열었다. 비용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충당했다고 한다. 여유 범위 안에서 별이는 선행을 넘어서 옳다고 여기는 가치에 몸을 내던지는 종교인 특유의 소명 의식 발현에 가까웠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돈도 문제였지만 조건 없는 선의를 부담스러워하는 어르신들의 인식도 넘어야 할 과제였다. 체면을 중시해 대가 없는 도움을 경계하는 어르신들의 '부채의식'을 털어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강 목사는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지극정성으로 어르신을 살폈다. 이제는 20대 성인이 된, 당시 꼬꼬마였던 두 남매의 역할도 컸다. 2010년 남편 목사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도 강 목사는 어린 남매의 고사리손을 잡고 반찬나눔을 멈추지 않았다.

“복지 사각지대, 드러난 기초수급보다 더 위험”

현재 강 목사가 챙기는 가정은 100가구가 넘는다. 기초수급자가 일부 포함됐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제도권 수혜 범주에서 배제된 이들이 더 많다. 가족이 존재하지만 왕래가 끊겨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사회 제도의 맹점으로 수급 자격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독거노인의 경우 기초수급 대상



방문한 집의 문이 잠겨 있는 경우에는 문고리에 반찬을 걸어둔다.

에 속하려면 지원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에선 부모를 향한 원망이나 (부모를 방치했다는)사회적 체면 손상 등의 이유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법원을 외곽 산속에 움막을 짓고 사는 A 노인의 경우 강 목사가 어렵사리 자녀를 설득해 기초수급 자격을 얻게 한 경우다. 기자가 만나 본 A 노인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 안 좋은 생각을 할 무렵 만난 강 목사님은 내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다. 강 목사는 “기초수급자보다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형편이 더 열악하다. 고독사 대다수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봉사자들이 독거노인과 대화를 나누며 말벗이 되어 드리고 있다.

집집마다 사연 다양...인간관계에 환멸 느껴 골방서 촛불 켜고 살기도

직접 방문해 마주한 이들의 삶 면면은 다양했다. 의지하던 홀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겨진 시각장애인 B 씨는 집 뒤편에 맹지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 신청이 번번이 반려됐다. 최근 세상과의 유일한 소통 수단인 귀에 염증이 생기더니 뇌까지 번져 수술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했다. 수술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관계기관은 맹지를 처분하라는 원칙적 입장만을 고수했다. 하지만 맹지는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처치 곤란한 존재

였다. 결국 B 씨는 교회 등 주변 도움으로 수술받았다.

투병하는 C 씨, 젊은 시절의 상처로 인간 존재에 환멸을 느끼고 골방에 틀어박혀 촛불을 켜고 생활하는 D 씨, 듣지도 말하지도 못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E 씨 부부 등이 강 목사와 연을 맺고 있다. 주중에는 강 목사가 각 가정의 형편을 살피고, 매주 토요일에는 각지에서 모인 봉사자들이 손수 음식을 만들어 각 가정을 방문해 말벗이 되고 있다.



봉사자들이 은빛교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다.

유난히 밝게 노상에서 3시간 대화하던 날 그는 사망했다

강 목사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향한 관심을 높인 건 깊은 상흔에 기인한다. 십수 년 전 길에서 만난 강 목사를 붙잡고 평소와 달리 장장 3시간을 들뜬 모습으로 밝게 이야기하던 F 씨. 기초수급자는 아니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교회의 도움을 받던 그는 강 목사와의 만남 사흘 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망 추정일은 강 목사와 대화를 나눈 당일이었다. 그때 강 목사가 받은 충격은 엄청났다. 자살 징후를 제때 알아채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그를 깊은 절망의 늪에 빠뜨렸다. 거기에 “너 사람 살린다면서 왜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라는

고인 친구의 술주정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다. 당시 충격으로 강 목사는 한 달간 움짱달짝하지 못했다고 한다.

반찬나눔 20년 만에 고독사 '0'

202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전국 고독사 수는 3378명이며, 이 중 경기도가 713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때 미군 부대 중심으로 번성하기도 했으나 이후 쇠락기를 걷는 법원읍의 고독사 비율은 높은 편이다. 강 목사가 방문하는 곳은 4년 전만 해도 매년 2~4건의 고독사가 발생했다고 한다. 다행히도 그 수는 2024년



봉사자가 반찬이 든 비닐 봉투를 들고 독거노인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까지 4년째 ‘0’에 수렴하고 있다. 법원읍에서 반찬나눔을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 얻은 성과다.

기초수급자 조건과 별개로 진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주변의 제보로 파악한다고 강 목사는 말한다. 경제적 조건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지자체와 달리, 강 목사는 상황을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주요하게는 심리적 빈사 상태를 깊이 고려하여, 일반적 통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정황을 참작해 심신(心身)의 필요 충족을 돕는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어도, 길보기에 노동이 가능해 보여도 자칫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걸림이 엿보이면 과감하게 개입한다. 세상과 연결된 관심의 끈 한 가닥만 있어

도 누군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게 강 목사의 지론이다. 실제로 만나본 한 독거인은 “목사님과 자원봉사자들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했다. “기다리는 대상이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된다”고도 했다.

진심 뒤따르는 복지 시스템... 그럼에도 “복지보다 먼저 가지 않는다”

사실 반찬나눔의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비슷한 사업이 존재한다. 기초수급자로 파악되면 지원되는 여러 혜택 중 하나다. 하지만 시스템에 의해 관성적으로 움직이기 쉬운 복지프로그램이 자발적 선

행보다 큰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2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된 노부인 G 씨는 강 목사의 반찬나눔 봉사는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진심으로 공감하며 말벗이 되어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 관계부처와의 협업은 담당자 성향에 따라 천지 차이다. 주변 제보를 바탕으로 돌봄에 나서는 강 목사의 대처는 대개 지자체 복지체계보다 빠르다. 별도의 보고 체계 없이 어려운 형편이 파악되면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점은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마냥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먼저 챙기는 것이 민망한 일이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 괜한 일거리만 늘린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강 목사는 담당 공무원이 미온적인 태도를 넘어 반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오랜 경험 끝에 강 목사는 “복지보다 먼저 가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웠다. 개입할 일이 있다면 국가가 먼저 움직이게 하고, 그런 이후 제도의 공백을 찾아 메운다. 나름의 절차에 따른 분업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많다. 독거인들의 삶이 불안정하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려 갑작스럽게 수감(收監)되는 경우도 있고, 무연고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강 목사는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에서 배제되

곤 했다. 어느 곳에 수감됐는지, 무연고 사망자에게 드러나지 않은 가족은 없는지 등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백방으로 수소문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 접견하고 영치금을 넣어주는 것도, 한겨울에 갑자기 비어버린 수감자의 빈집을 관리하는 것도, 무연고 고독사 장례를 주관하는 것도 국가의 도움 없이 혼자 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 차원이겠지만, 적어도 선의를 가진 종교인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면 좋겠다. 사람을 살리자고 하는 일이지 않나”라는 강 목사의 토로는 긴 여운으로 기억 속에 남아있다.

—————
**사람 살리는 기사 쓰겠다는 다짐…
 펜 든 손에 반찬 봉투도**

8년간 문화부에 몸담아 많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어렵게 마주한 인터뷰이의 말과 행동이 명성만 못하거나, 말이 삶을 앞서 당황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그런 점에서 강 목사의 인터뷰는 오래 곱씹는 경우다. 자기희생적 헌신이 보는 이에 따라 대책 없이 여겨질 수 있지만, 적어도 삶과 행동이 말과 명성보다 앞선 경우였으니 말이다.

적잖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당시 봉사자들을 향한 어느 노인의 환한 웃음이 잊히지 않는다. 기사가 나가고 응원과 도움



은빛교회에서 인터뷰 중인 강인희 목사의 모습

의 손길이 늘어났다고 기뻐하던 강 목사의 미소는 기자 초년생 시절 ‘사람 살리는 기사를 쓰겠다’던 순수했던 다짐과 겹쳐 눈에 아른거린다.

이 글을 쓰면서 2024년 4월 은빛교회 봉사자들의 반찬나눔에 동행했다. 외부 접촉을 병적으로 꺼리는 탓에 대면하지 못하고 H 씨의 현관 문고리에 반찬을 걸어두었는데, 며칠 뒤 H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강 목사의 연락을 받았다. 질병 악화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강 목사는 “걸어둔 반찬이 거뒀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의 신고로 발견됐다”며 “그래도 반찬 덕에 이틀 만에 일찍 발견되었다고 이웃들이 감

사해했다”고 말했다. 시신을 빨리 수습한 건 다행이나, 개인적으로 내가 반찬을 걸어놓던 시점에 혹 H 씨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앞지 않은 자책감을 불러일으켰다. 20년 노력 끝에 이어온 4년간의 고독사 ‘0’의 기록은 다시 원점이 되었지만, 그간 술한 죽음을 목도한 봉사자들은 지금도 분주한 손길로 고독한 죽음을 밀어내고 있다. 이제 주말이면 나 역시 펜을 들었던 손에 반찬 주머니를 움켜쥐고 그들의 집으로 향한다. 그들의 외로움이 기사 오타처럼 삭제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외로운 죽음이란 마침표를 연신 스페이스바를 눌러 애써 밀어내는 심정으로... 📄

아시아경제 서민음 기자